내년부터 제로페이 쓰면 40% 소득공제

바뀐 세법…세테크는?

신용카드 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키로
50세이상 연금 납입 한도 400만→600만원으로 상향
국내외 주식투자 손익 합산세금…해외투자 활기 띨 듯

최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고액 자산가는 물론, 여윳돈이 적은 직장인들도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초저금리 시대에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상품을 파악해 세제개편 전에 가입해야 하는 상품과 세재개편 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50세 이상 납입연금 세액공제 600만원까지=정부가 지난 달 25일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0세 이상은 내년부터 3년간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되고,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사적 연금 가입자의 불입한도가 늘어나고 공제 혜택이 늘어난 만큼, 금융기관의 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은 조언이다. 다만 현재 연금 상품의 실제 수익률 점검이 필요하다.

또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연금수령 시점이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로 유지되지만,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60%로 낮아진다.

◇절세혜택·은퇴자금 어떻게 챙길까=박희연 KEB하나은행 광주지점 VIP PB팀장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금융 상품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

역시 연 1800만원 납입 한도에 계좌보유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모두 7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으로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8일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의 올해 2분기 개인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1.62%로 지난 1분기 1.07%에 비해 올랐다. 2분기 적립금은 2조4367억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8%(1818억원) 늘었다.

소상공인들의 일종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는 복리 이자율을 제공하고,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 팀장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절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은퇴자금을 마련하려는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의 운용률을 점검하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외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국내·해외 주식을 합산해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을 적용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 양도 손익을 계산하면서 미국·중국 등 해외주식 투자 유인이 커졌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됐고 내년부터는 제로페이(모바일 직불결제) 이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 관련 혜택을 챙기려는 직장인이 늘 것으로 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절세 상품 비교

구분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2017년 7월26일 이후 소득 있는 누구나	제한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계좌보유	1인 1금융기관 1계좌	〃	1인 1계좌 전 금융기관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한도		월 100만원, 분기 300만원
공제방법	세액공제		소득공제(사업·근로소득)
연간 공제 한도	최대한도 700만원 연금저축(~400만)+퇴직연금(~700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불입금액×16.5% (초과 불입금액×13.2%)		-4000만원 이하:500만원 -4000원~1억원 이하:300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
최대 절세 효과	115만5000~92만4000원	66만~52만8000원	88만~33만원

〈자료:KEB하나은행 제공〉

금값 연일 최고가

1g당 5만9230원

미중 무역분쟁 등에 대한 불안 심리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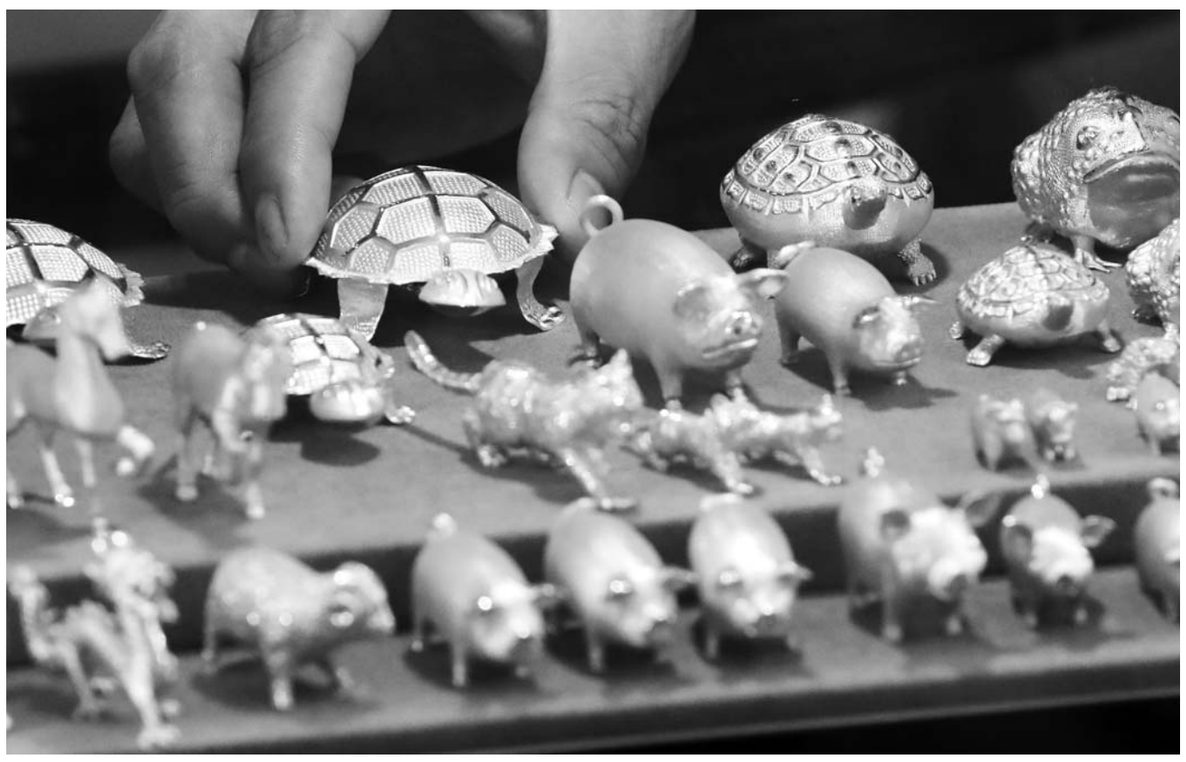
한국거래소는 8일 오후 7시 현재 KRX 금시장의 1g당 금 가격이 5만9230원(1돈당 22만2113원)으로 2014년 3월 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 가격은 지난 2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날에 비해 100원(0.17%) 올랐고 연초(4만6240원)와 비교하면 28%나 뛰어오른 수준이다.

거래량도 급증세다. 이날 하루 금 거래량은 124.36㎏으로 올해 일평균 거래량(30.4㎏)의 4배 수준이다.

이날 국제 금 가격은 금융정보업체인 텐포어(Tenfore)가 공시하는 국제 금 시세 기준으로 1트로이온스당 1497.96달러를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최근 무역갈등 우려가 커지며 '안전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이 부각돼 금 가격이 닷새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울 종로 한국금거래소에서 관계자가 순금 제품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환율 1200원 시대…"달러 투자 해야되나"

강달러에 선물ETF '인기'
올해 수익률 최고 16%대

연고점을 찍었던 원/달러 환율이 7일부터 숨을 골랐지만 '지금이라도 달러를 더 사야할 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하다.

8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7원 내린 달러당 1209.2원에 장을 마쳤다.

환율이 이틀째 하락 마감했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달러 움직임의 향방과 매수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달러를 보유한 자산가나 유학생이거나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 수입업체 등은 정기적으로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 달 말 390억6677만달러로 전달보다 4.1%(15억4704만달러) 증가했다.

상반기 달러 급등을 한번 겪다 보니 지난달 재차 상승 조짐을 보이자 '달러 사재기' 움직임이 있었다.

원/달러 환율은 4~5월 단기급등하며 종가 기준으로 지난 17일 1191.5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6월28일엔 1154.7원까지 내렸다.

그러다가 일본의 1차 수출규제가 시작된 7월1일을 기점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해 현재 장중 1200원대를 웃돌고 있다.

현재 달러를 사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고재필 하나은행 클럽1 PB센터 PB부장은 "달러를 지금 사야 하냐, 달러가 더 오르는 거 아니냐는 문의가 많이 온다"며 "GDP 성장률이 안 높다고 하고 일본 문제까지 터지니 한국 경제가 과연 괜찮은 것인지, (환율 상승이) 달러 강세 때문인지 우리 문제 때문인지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현조 우리은행 TC프리미엄잠실센터 센터장은 "가뜩이나 미중 무역갈등이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에서 7월부터 일본의 경제보복이 문제화 돼 고객들이 6월과 7월에 달러를 많이 매입했다"고 말했다.

정성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양재PB센터 팀장은 "해외 유학 등 송금 수요가 있는 분들은 빠르면 연초부터 조금씩 달러를 사 놓았다"고 말했다.

지여옥 우리은행 본점영업부 PB팀장은 "자녀가 유학을 준비하거나 이미 간 분들은 달러를 많이 사둬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며 "유학생 자녀를 둔 분은 미리 달러를 준비해 놓고 있어서 지금처럼 달러가 비싸면 이미 환전해 놓은 달러를 보내고 달러가 산 가격보다 낮으면 새로 사서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를 이미 보유한 자산가들은 지금 달러를 분할 매도해 환차익을 실현할 때라는 것은 중론이지만 달러가 없는 일반인들이 매수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다.

박병호 신한은행 인천PWM PB팀장은 "부담스러운 환율대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가 있는 분들은 달러로 바꿀 수는 있지만 달러를 대규모로 사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달러선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지난 5일 기준 달러선물 레버리지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최고 16%대에 달했다.

달러선물지수를 기초로 삼는 달러선물 ETF는 달러화 가치가 오를수록 수익률이 상승한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지수 상승 폭의 2배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연합뉴스

"자동이체로 우대금리 챙기세요"

NH농협은행, 'NH올원5늘도적금' 출시

NH농협은행은 매일 자동이체로 우대금리를 받아 일일 재테크를 할 수 있는 'NH올원5늘도적금'을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모바일 전용인 이 상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간 매일 저축 가능한 적금'라는 뜻을 지녔다. 매월 70만원까지 한 번에 1000원~1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게 설계됐다.

1인당 3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6개월이다.

퇴근 시간 후 가입하면 0.1%포인트, 가입 기간 자동이체 횟수가 60회 이상이면 0.3%포인트, 만기 시 저축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 300만원 이상은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요건을 전부 충족할 경우 금리 2.05%(29일 기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8월 한 달 간 상품 출시를 기념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